실란트시장“ 희비쌍곡선"

전기 · 전자용 높은 신장률 … 건축용은 제자리걸음

국내 실리콘실란트시장의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89년말부터 시작된 200 만호 건축기류를 타고 급신장했던 건축용실란트 시장이 현재는 자연 증가율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 · 전자, 자동차에 들어가는 산업용은 후방산업인 자동차와 전자 산업의 호황에 힙입어 20% 이상의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93년 건축용실란트 시장은 530억원규모로 추정되며 94년에는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실리콘시장의 40.7%에 해당하는 규모로 92년 49.3%에 비해 9%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비해 산업용실란트는 93년 80억원규모로 92년대비 27% 증가, 전체 실리콘 시장의 6.4%를 점유한 반면 94년에는 20% 이상 신장이 예상돼 점유율도 7%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용실란트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리콘실란트 생산기업들은 산업용보다는 건축용시장의 선점에 더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산업용실란트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합작사에서 직접들여와 판매하는 제품이 많아 채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건축용실란트 시장은 7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실리콘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용에 비해 제조가 간단하고 국내에서 생산 ·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리콘실란트 4사간의 시장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실리콘실란트를 생산 ·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럭키DC실리콘, 한국신에츠실리콘, 동양실리콘, 고려화학으로 현재는 럭키DC실리콘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럭키DC실리콘의 경우 78년 50대50에서 시작한 출자자본 비율이 현재는 90대10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분변화로 그동안 국내시장의 선점에만 노력해오던 럭키DC실리콘이 94년 들어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리콘제품은 2액형에서 1액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초산계에서 비초산계인 Oxime 형으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 전자용 실란트시장 규모는 93년 647 톤, 79억원으로 추정되며 94년에도 25% 이상 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 전자용 시장은 한국신에츠실리콘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 전자용실란트가 주로 쓰이는 용도는 접착 및 실링용이 50%, 코팅용 40%, 몰딩용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10/10>